

“아시안게임 금메달 65개 2위 수성”

자카르타·팔렘방 AG 미디어데이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로

일본의 경기력 높아져

추격이 거셀 것” 예상

“남북 관계 개선에도 앞장”

“금메달 65개를 획득해 2위를 수성하겠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전총련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김성조(한국체대 총장) 아시안게임 선수단장, 이재근 선수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시안게임을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각오를 다졌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금메달 65개를 획득해 종합 2위를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 회장은 일본의 추격이 거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많은 투자를 해서 경기력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목표한 65개의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미디어데이가 열린 10일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총련(왼쪽부터)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김성조 선수단장, 이재근 선수촌장.

기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 아시안 게임에서도 남북이 공동 입장을 하고,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드래건보트, 조정, 농구 등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탁구, 사격 등 국제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한다. 올해 1년은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북 공동입장 시 한반도기 ‘독도 표기’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남과 북은 독도 표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도 독도 표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독도는 우리땅이고,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독도 표기를 요청하기로 하고 OCA에 의견을 보냈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자카르타 현지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코리아 하우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홍보와 함께 선수들의 인터뷰 장소로 활용된다. “북측과 함께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함께 할 경우 면적이 넓어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북측과 논의 중이다. 북측에서 육류관 평양생명을 만들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귀띔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러시아서 독일 이기듯”

한국 남자 라크로스, 이스라엘 세계선수권 참가… 최고 순위 도전

한국 라크로스가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해 6개월 동안 구슬땀을 흘렸다. 세계 무대에서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한다.

한국라크로스협회는 남자 대표팀이 12일부터 21일까지 이스라엘 북부 네타냐에서 열리는 2018 라크로스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2002년 호주 퍼스 대회부터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한국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최근 6개월간 조직력 다지기에 몰두했다. 동시에 피지컬이 좋은 서양 선수들을 상대하기 위해 체력 강화에 집중했다.

한국은 세계랭킹 9위 독일, 37위 프랑스와 조별예선을 치른 뒤 순위에 따라 토너먼트에 나선다.

세계랭킹 8위인 일본을 중심으로 최근 아시아 국가의 성장세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역대 최고 순위 도전도 관심사다.

주장 유민재는 “첫 경기부터 강국인 독일을 상대하지만 축구대표팀이 러시아에서 보여준 기적을 이스라엘에서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4년 전보다 8개국 더 늘어난 총 46개국 참가한다. /뉴시스



호원대, 올해 대학 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 전국 7위

호원대(총장 김희성) 스포츠단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총협)의 ‘2018년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에서 전국 94개 대학 중 7위에 선정됐다.

작년 최종 지원대상인 80개 대학 중 12위에 선정되었던 기록보다 한층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기쁨을 토했다.

2018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있으며, 엘리트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대학운동부 종합평가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은 대학별 운동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나누어 심사위원회 심의 및 현장방문 실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호원대 스포츠단은 이번 사업으로 지원금 총 1억 4225만원을 확보하여, 대학운동부 육성 및 대학스포츠 경쟁력 제고, 엘리트

스포츠 진흥에 투자할 예정이다. 김희성 총장은 “이번 대학운동부 평가로 4년 연속 상위권에 오르게 되어 매우 기쁘고, 확보한 사업비는 스포츠단에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선수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운동에 더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찬 스포츠단장(스포츠경영학과)은 “평가를 잘 받은 만큼 올해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우리대학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고장의 긍지와 학교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계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 스포츠단은 전문스포츠 7종목(검도, 야구, 우수, 씨름, 축구, 태권도, 펜싱)과 생활체육종목 4종목(무에타이, 킥복싱, 해동검도, 합기도)을 운영하며 지역 체육발전과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에 목표를 가지고 육성지원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국체전 성화봉송주자 모집

익산시, 만 15세 이상 익산시민 250명 선발... 25일까지 신청해야

익산시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주자 25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만15세 이상의 익산시 거주자로 1km 내외(10분 이내)의 거리를 체력 부담없이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익산시청 체육진흥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봉송은 구간별 주주자 1명, 부주자 1명, 호위 주자 8명이 한 팀을 구성해 300~900m를 봉송하게 되며 전국체전 160명, 장애인체전 9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주자는 성화봉송 교육과 예행연습 등 사전교육을 거쳐 성화를 봉송하게

되며 유니폼, 운동화, 헤드밴드 등 개인 소모품품을 지급 받는다.

10월 3일 강화군 마니산 참성단에서 개최된 전국체전 성화와 익산 미륵사에서 개최된 장애인체전 성화는 10월 8일 도청을 출발하여 13개 시군을 동시봉송하며 11일 익산시청에 안착된다.

한편 익산시 성화봉송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나누어 개별 봉송하는데 전국체전 성화는 10월 12일 익산시청을 출발해 시내 일원을 돌아 종합경기장까지 18구간(주차16, 차량2)으로 나눠 봉송하며 장애인체전 성화는 10월 25일 익산시청을 출발해 11구간(주차9, 차량2)을 봉송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LPGA 31언더파 김세영, 세계랭킹 20위로 경총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역대 최소타와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작성한 김세영(25)이 세계랭킹 20위에 올랐다.

지난 9일 미국 위스콘신주 오나이다에서 끝난 LPGA 투어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우승하면서 김세영의 세계랭킹은 지난주보다 6계단 상승했다.

김세영은 이 대회에서 31언더파 257타로 우승, 2002년 ‘스탠더드 레지스터 핑’에서 아너가 기록한 72홀 최저타 기록(27언더파 261타)을 넘어섰다.

박인비(30)와 박성현(25)이 1, 2위를 유지했고 유소연(28) 4위, 김민경(30) 7위, 최혜진(19) 9위 등 한국 선수 5명이 10위 안에 들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아시아나항공 오픈 챔피언 김지현(27)은 68위에서 56위로 상승했다. /뉴시스

신뢰받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경 제 8 대 완주군의의회 개원 축